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 20.(일) 11:00 < 7.21.(월) 조간 > 배포 2025. 7. 18.(금)

“이 계량기, 정부가 관리해줘야 하지 않나요?”

-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법정계량기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

- 우수 제안자에 장관상·상금 등 시상… 정책 반영도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한국계량측정협회와 함께, 국민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계량기 중에서 정확성·신뢰성이 부족해 국가의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기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법정계량기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공모전 개요 >

○ 공모기간: 2025. 7. 21.(월) ~ 8. 29.(금)

○ 참여대상: 일반 국민 모두

○ 참여방법: 지능형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https://www.metrology.kr), 씽굿(https://www.thinkcontest.com), 정부24(https://www.plus.gov.kr) 등에서 온라인 접수

○ 제안내용:

▶ 일상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중

▶ 평소에 “정확하지 않다”거나 “신뢰성이 낮다”고 느낀 기기를 선정해서

▶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중요하고, 왜 국가가 법정계량기로 관리해야 하는지 자유롭게 작성

○ 제외대상 계량기: 이미 법정계량기로 지정된 13종 계량기*

* 일반 전자저울, 분동(저울의 무게추), 도시가스 계량기, 수도계량기, 온수계량기, 오일계량기, 주유기, 요소수 계량기, LPG계량기, 눈새김 탱크, 적산열량계(난방 사용량 측정기), 전기계량기, 전기자동차 충전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시로 제시된 몇 가지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①병원마다 체중계 수치가 달라 아이의 약 처방에 혼란을 겪었던 보호자의 사례, ②집에서 가구 배치를 위해 줄자로 공간을 쟀지만 줄자의 오차로 인해 가구가 맞지 않았던 사례, ③생맥주 전문점에서 500cc로 표기된 맥주잔의 용량이 실제와 달라 불신을 느낀 경험 등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단 개인의 불편을 넘어, 의료의 정확성, 소비자의 권익, 공정한 거래 질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정계량기로 관리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참고로 법정계량기는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형식승인, 검정, 사후관리 등을 통해 정확성과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한다.

이번 공모전은 계량기 사용이 일상 속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정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3종의 법정계량기만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화하는 산업과 생활환경에 맞춰 새로운 법정계량기 수요를 제도에 반영하고자, 국민의 경험과 의견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결과 우수 제안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등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본 국민제안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져 더 신뢰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적합성정책국 계량측정제도과	책임자	과 장	홍순파 (043-870-5510)
		담당자	연구관	김소미 (043-870-5512)
			주무관	최대현 (043-870-55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신규 법정계량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 설명**

1. 제안 대상 계량기

우리는 매일 무게, 길이, 양, 거리 등을 측정하는 기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끔, “정확하지 않은데?”, “이거 국가가 관리해줘야 하지 않나?” 싶은 기기들이 있죠? 이번 공모전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중 정확하지 않아서 불편하거나, 신뢰가 어려운 기기에 대해 국가가 기준을 세워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기를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제안 받는 행사입니다!

2. 「계량에 관한 법률」 또는 타 법률에서 계량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이미 관리 중인 계량기는 제외

*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 중인 **법정계량기 13종**

: 일반 전자저울, 분동(저울의 무게추), 도시가스 계량기, 수도계량기, 온수계량기, 오일계량기, 주유기, 요소수 계량기, LPG계량기, 눈새김 탱크, 적산열량계(난방 사용량 측정기), 전기계량기, 전기자동차 충전기

3. 제안 공모 기간 : 2025년 7월 21일 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

4. 제안 시 작성 방법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계량기(측정기기) 중, “**정확하지 않다”거나 “신뢰가 높지 않다”고 느낀 계량기(측정기기)** 그리고 **그 계량기(측정기기)를 왜 국가가 법정계량기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써 주세요 (최대 글자수 500자)

※ 아래의 **(작성예시)**에 기재한 계량기는 제외

5. 기타

아이디어 응모 신청서가 있으나, 글 또는 그림으로 간단하게 제안해도 되며, 제안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중 우수 제안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 상장 및 소정의 상금을 증정합니다.

< 포상규모(6명) >

구분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훈격	장관상	국표원장상	협회장상
상금(만원)	100	각각 50	각각 30

(작성 예시)

✓ 제안 아이디어 1 예시: 골프공 비거리 측정기

저는 40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주말이면 동호회 사람들과 라운딩을 나가죠. 그런데 골프를 자주 즐기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 중 하나는 비거리 측정기의 신뢰성 부족입니다.

같은 클럽, 같은 스윙을 했는데도 측정기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와 혼란스럽고, 실력 향상에도 방해가 됩니다. 이는 측정기별 정확도 차이와 정기 점검 부족 때문입니다. 비거리 데이터는 골퍼의 실력 향상뿐 아니라, 클럽 성능 평가나 피팅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믿고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골프 비거리 측정기에 대해 오차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 검정을 의무화한다면, 골퍼는 보다 공정하고 과학적인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마추어뿐 아니라 프로 골프 산업 전반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제안 아이디어 2 예시: 병원용 체중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데려가게 되잖아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때마다 체중계에 오르게 되는데, 병원마다 측정값이 달라 의문이 생긴 적이 많습니다.

특히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 약의 용량이 체중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단 몇 킬로그램의 오차가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중계는 단순한 저울이 아니라 진단, 약 처방, 입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의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기입니다. 특히 아이, 노인, 환자처럼 몸 상태 변화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정확한 계량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체중계는 정기 검정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병원용 체중계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정기적인 검정을 시행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아래 운영되도록 한다면 국민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제안 아이디어 3 예시: 가정용 줄자

코로나 이후 집에서 가구를 조립하거나 인테리어를 바꾸는 일이 많아지면서 줄자 사용이 일상이 됐습니다. 가구나 택배 포장, 아이 키 측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만, 줄자는 사용이 잦을수록 늘어나거나 눈금이 닳아 오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책상을 구매할 때 정확히 재고 주문했지만, 막상 설치해보니 공간이 맞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줄자의 오차 때문이었죠.

흔한 도구지만 줄자의 오차는 생활 속에서 가구 사이즈 착오, 의류 불편, 키 측정 오류 등 실질적인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쇼핑 활성화로 줄

자에 의존하는 빈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줄자도 하나의 정밀 계량 도구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품질 기준과 허용 오차를 설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일상 속 계량 환경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 제안 아이디어 4 예시: 500 cc 표준 맥주잔

저는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낙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생맥주집에서 500 cc 잔을 받을 때마다 “이거 진짜 500 cc 맞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품이 반이거나 잔 두께가 달라 실제 맥주 양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많아 보이고, 또 어떤 날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몇 모금 차이지만, 어쨌든 500 cc 기준으로 값을 치른 거라면 정확한 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1인 소비자 중심의 혼맥 문화도 많아졌고, 맥주 한 잔이 주는 만족감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470 cc인지 510 cc인지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병맥주는 용량이 부족하면 문제가 되지만, 생맥주잔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500 cc 맥주잔도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500 cc”로 판매되도록 제도화되면 어떨까요? 소비자도 안심하고, 업주도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